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1년 9월 30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배만호 | 편집인 김중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hgo@naver.com)

학사 일정

9.1(목)	2학기 개강
9.1(화)~7(수)	2학기 수강정정
9.19(월)~23(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10.10(월)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 제출
10.18(화)~24(월)	2학기 중간고사
11.9(수)~11(금)	겨울 계절수업 수강신청
12.13(화)~15(목)	겨울 계절수업 현금등록
12.14(수)~20(화)	2학기 기말고사
12.19(월)	2012년 1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2012.1.20(금)	
12.21(수)	동계휴가 시작
12.21(수)~27(화)	2학기 성적입력

2011년도 인문대학 해외인턴사업 실시



인문대학에서는 8월 1일부터 28일까지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해외인턴사업”을 중국 북경에서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대생들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 현지 기업체와 협력하여 실제 업무와 관련한 연수를 행함으로써 중국 현지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하고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졸업 후 중국 현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중어중문학과 남덕현 교수가 현지 업체와의 연락을 중재했고, 강식진 교수는 인솔책임교수로서 현지 진행을 맡았다. 중어중문학과 9명, 고고학과 6명, 언어정보학과 5명, 사학과 3명, 한문학과 1명 등 24명의 인문대 3~4학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북경만도기계,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북경KC.케미컬트레이드, 북경태상테크유한공사 및 북경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북경삼립, 북경평화, 북경세중, 북경한일, 리어다이모스, 한라공조 등의 10개 기업체에서 3주간 실습을 하였다.

배만호 인문대학장은 8월 1일~3일에는 북경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협정(MOU)을 체결, 협조를 부탁하였고, 8월 26일~28일에는 강식진 교수와 함께 인턴을 마친 학생 및 업체 관계자들과 현지에서 간담회 및 평가회를 가졌다. 특히 이 기간 중 인턴십에 참여한 24명 전원이 북경에 있는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를 방문하여 한인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한인회에 대한 소개 및 최근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이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기업 현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정효권 회장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로 1명의 학생이 현지취업 되었고, 3명의 학생이 취업약속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Contents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9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1045명, 석사 832명, 박사 148명이 배출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학사 112명, 석사 32명, 박사 14명 등 총 15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학위수여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학위기와 표창장 수여, 축하연주,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는데, 인문대학에서는 정문채(국어국문학과)군이 수석을, 김혜진(영어영문학과)양이 차석을 차지했다. 학위수여식에서 김인세 총장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졸업생들에게, “급속한 변화의 세기에 끊임없는 자기연마에 충실”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로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효원인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차세대 리더”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인문대학 농민-학생 연대활동



인문대학 11개 과의 학생 182명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사천시 곤양면과 곤명면 일대의 11개 마을에 농민-학생연대활동을 다녀왔다. 전체적인 주요 활동으로는 각 마을의 특색에 따라 마을의 환경미화와 미사용 비닐하우스 정비, 하우스 철거, 배수로 사업, 조정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각 과의 각 마을에서는 개발 잡초 제거, 고구마 순 심기, 비료 포대 운반, 피 뽑기, 차양막 설치, 벚짐 깔기, 하천 정비, 축사 먹이주기 등 젊은 일손이 필요한 일들을 도왔다. 이 밖에 주민 분들의 가사를 돕고 마을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 호별 방문을 행하였으며, 마을 어린이들과 분반활동을 하는 등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심껏 수행함으로써 사천시의 11개 마을에 도움을 주고 돌아왔다. 특히 노어노문학과가 다녀온 사천시 곤양면 환덕마을에서는 농활대가 마을을 방문한 이래 최초로 마을어르신들에게 국수를 대접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고, 불어불문학과가 다녀온 곤양면 상평마을에서는 마을 최초로 그 마을에 신성시되는 나무에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색적인 활동도 했다. 이번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에 참가한 인문대 학생들은 7박 8일간의 일정을 통해 농촌의 소중함과 고마움 등 우리네 삶에서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마음 속 깊이 깨닫고 돌아왔다. 농활대원들은 농촌 부흥에 적게나마 힘을 보탤 것에 대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사천시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촌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학년도 1학기 환경개선 사업

인문대학에서는 지난 하계방학 동안에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강의실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강의실 칠판 및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여 수업이 원활하게끔 하였다. 또한 재건축이 예정된 제4공학관(전기관)에 위치하고 있던 호학정을 (구)정보전산원으로 이전시켰으며, 이전 시 이사비용 전액을 인문대에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학 전인 8월 중순 교수연구동 및 인문관의 정수기와 살균기 교체, 바닥 왁스 작업 등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만들었다.

전임대우강사 신규임용

부산대학교에서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전임대우강사 제도'를 일반학과에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분야별 전임대우강사 49명을 공개 채용했다. 인문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에서 7명의 강사가 임용되어, 이번 학기부터 대형 강의를 포함해 주당 12시간(최대 15시간)의 강의를 맡게 된다. 임용은 2년 단위로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각종 보험료와 퇴직금이 지급되고 보수가 매월 지급되는 연봉제로 운영되며 연봉은 매년 증액된다. 단,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타 대학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임용 명단은 괄호와 같다. (국어국문학과 정훈식/김문기; 한문학과 이성혜; 언어정보학과 임어경, 사학과 선석열[한국사]/박구철[동아시아근현대사]; 고고학과 히라고리 타츠야)

이 가을에 '인문학'을 생각하며

김용규(영어영문학과)

학교가 시끄럽다. 교육부가 총장후보자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머지않아 다시 총장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임용 후 지켜본 몇 번의 선거도 사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유독 고소, 고발이 많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선거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말았다. 이제 관행은 더 이상 관행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관행에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빠져있다. 습관이 제어능력을 상실하면 마치 쇠를 파고들어 그 강함을 점차 파먹어 들어가는 녹이 되듯, 관행도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마비를 굳게 하는 관성적 힘이 될 수 있다. 내가 본 총장선거가 그렇다 보니 총장선거는 의례 그런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았는지 자문하고 반성하게 된다.

이번 선거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고소와 고발이 교수들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를 학교 밖으로 끌고 감으로써 교수들이 어렵게 획득해왔던 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학교 외부의 힘들이 학교 사정에 개입할 여지를 교수들 스스로가 제공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런 우려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선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직선제는 대학 내외부의 권위주의적 세력들이 대학과 교수의 활동을 좌지우지하던 전횡에 맞서 교수들이 학문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들게 싸웠던 민주화의 산물이 아니던가. 부디 다음 선거는 교수들 스스로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고 강화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대학의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단상을 시작한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 대학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대학 뿐 아니라 교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적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실행되어 왔고, 간선제로의 전환은 그런 자율성의 종언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줄기 신선한 바람도 누적되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되는 법이다. 9년 전 임용 당시 나예겐 연구자로서 하나의 꿈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교수 승진 전까지 논문과 번역에 전념하다 정교수가 되어 계약의 멍에에서 벗어나면 호흡을 길게 갖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 정년 전까지 책 한 두 권만 쓰자는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해외파견이나 안식년도 가고 중간치 정도의 성과급이라도 받으려면 그 꿈은 영원한 꿈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강의평가, 연구비 수주능력, 논문 게재, 보직, 학회 및 사회활동 등 연구자의 능력을 지표화하는 평가제도에 맞춰 그동안 철따라 습관적으로 연구비 신청을 하고, 심사자 외엔 읽지 않는 논문을 발표하고,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성과에만 매달리고, 기획과제나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와 사회자만 앉아 있는 학회에도 드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살림도 펴지고 연구력도 좋아졌느냐 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친구를 멀리하고 가까운 동료와의 인간적 대화를 피하면서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 하는 연구실 지킴이가 되었다. 아마 연구 성과급 제도가 가동되면 피로감은 정년 전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만성화될 듯하다. 물론 이 제도 안에서 '행복한' 연구자가 있다면 나의 푸념은 개인적 푸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다들 그리 행복해보이지 않는다. 결국 연구자의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의 평가제도가 역설적이게도 연구자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내면으로의 침잠이나 반성이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나 자신의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은 유아론적 세계에 갇히기 십상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접고 여러 평가기준들을 살피면서 논문쓰기에만 열중하는 삶 속에서 인문학은 존재할 수 없다. 아마 세상이 인문학을 버리기도 전에 인문학자들 속에서 인문학은 고사되고 말 것이다.

인문학적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외부 권력의 감시와 규율을 내면화하는, 말 잘 듣고 유순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근대적 주체를 탁월하게 묘파한 바 있다. 그는 타율적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면 할수록 인간주체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상실하고 왜소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던 그가 말년에 이런 길들여진 주체를 거부하고 세상과 자기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의 기술을 가진 새로운 주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주장은 인문학을 사유하는 데 매우 시사적일 수 있다. 인문학자들이 타율적인 요구에 맞설 때,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세상에 대한 발언을 강화해갈 때, 인문학은 인문학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선거로 어수선하고 성과급을 거부해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이 가을, 인문학이 무엇인지, 인문학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장, 영문학, 문화이론 전공

학과/연구소 소식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국어학 여름 세미나가 7월 15일(금)~16일(토) 1박 2일간 부산시 학생교육원 한빛마루에서 개최되었다. 국어학 전공교수들의 지도하에 6명의 석·박사 논문 발표와 스터디 팀들의 스터디 발표 및 특강(이승훈 교수)이 있었다. 7월 29일(금) 인문관 시습관에서 열린 대학원 현대문학 여름 세미나에서는 현대문학 전공교수의 참석 하에 3명의 석·박사 논문 발표와 논문 통과자의 소감 발표 및 질의응답, 후기 신입생의 자기소개 및 관심 연구분야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9월 20일(화) 오전에는 인문대 정문 앞에서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졸업예정 학생들이 함께 졸업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학생 및 동과 부복수전공 학생 40명은 학과단위 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24일(일)~8월 13일(토) 강석진, 류명희 교수의 인솔 하에 북경외국어대학에 다녀왔다. 3주 동안 중국어 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정규학기 프로그램으로는 9월 2일(금) 학생 10명이 북경으로 출발하여 2012년 1월 7일까지 수학을 할 예정이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에서는 6월 27일(월)~7월 4일(월) 7박 8일간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에 여름농활을 다녀왔다. 갖가지 장기와 재량을 발휘하여 동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과 땅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일문과 학생들은 7월에서 9월까지의 여름방학 기간을 자기계발, 계절학기, 해외파견, 멘토링, 사회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충전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알차게 보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서는 하기휴가 동안 전공별로 세미나 및 논문발표회를 가졌다(영문학전공: 7월 16일[토] 상남국제회관 문창홀, 영어학 전공: 8월 21일[일]~8월 22일[월] 경북 문경 STX리조트, 번역학전공[월례발표회]: 7월 18일[월]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또한 대학원 영어학전공은 8월 16일(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언어학과 랜달 헨드릭 교수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8월 29일(월)에는 제4회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동장학금은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한명씩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학부 연극동아리인 드라마화회가 9월 2

일(금)~3일(토) 중앙동 자유바다 소극장에서, 9월 16일(금) 부산대 10.16기념관에서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으로 30주년 기념 연례정기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학과 단위 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매 학기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학기에도 7월 1일(금)~8월 6일(토)간 프랑스 브장송 프랑쉬-콩페 대학교 및 파리에 학부생 20명을 파견하였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은 6월 20일(월)~7월 4일(월) 경남 사천으로 농활을 다녀왔다. 2주 동안 비닐하우스의 비닐 제거작업, 잡초제거, 비료치우기, 감자 캐기, 고추 따기 등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외로이 살고 계신 농촌어르신들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였다. 농사일 돕기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학생들은 전하였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회 전국 학술대회가 8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0일(금)~11일(토) 양일간 인문관에서 개최되었다. 6월 27일에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국제교육센터 간에 학술 협약이 체결되어 러시아어 능력 인증시험인 토르플을 우리 대학교에서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대구 계명대학교(모스크바 푸쉬킨 대학교 주관)와 서울 에듀랑 사설어학원(모스크바 민족 우호 대학교 주관)에서만 토르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7월 5일에는 모스크바대학교 지역·경제학 교수인 파벨 레사코프 박사를 초청한 '한국과 러시아 경제 협력'이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학생 및 교수 70여명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문학과

한문학과 나래농활대가 6월 20일(월)~7월 4일(월)간 경남 사천시 사다마을로 여름 농활을 다녀왔다. 한편, 매년 방학기간에 맞춰 개최하고 있는 대학원세미나가 8월 17일(수)경북 청도 운문사 일대의 답사와 더불어 경북 허브리조트 무위원에서 열려 석·박사 과정생들의 학업계획서 발표를 들었다. 한문학과에서는 2010년도 후기에 2명의 문학박사(황병호: 冠巖 洪敬謨의 書畫 收藏과 鑑評, 이현호: 朝鮮後期 『史記』 批評 研究)를 배출했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8월 5일(금) 인문관에서 대학원 세미나 여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언어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및 수료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어학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



어졌으며, 후반부에는 언어정보학과 권순복 교수가 목소리의 숨겨진 비밀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동학과의 김인택 교수는 8월 22일(월)~9월 4일(일)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이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특강을 하였다. 호치민 대학교 한국학센터는 한국어교육 양성과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특강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사학과



사학과에서는 8월 18일(목) 효원사학회와 공동으로 「역사교육에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8월 29일(월)에는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생 5명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여러 교수님과 선후배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월 3일(토)에는 졸업생, 예비역과 함께하는 사학과 가족체전을 열어 친목과 건강을 동시에 다지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철학과



철학과 학부생 20명은 6월 20일(월)~7월 4일(월) 경남 사천 맥사마을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7월 8일(금)~9일(토) 양일간은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협의회 회원(약3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1학년도 하반기 강의개선 워크숍이 양산시 배넛골에서 열렸다. 또한 철학과 교수와 강사, 학부생 40여명은 9월 23일(금)~25일(일) 강원도 강릉 일대로 학부 학술답사를 다녀왔다. 9월 29일(목)에는 「하이데거 예술론을 통한 고야 〈사투르누스〉 해석의 가능성에 대하여」(김종기)라는 제하의 콜로키움(Colloquium)이 열렸으며, 9월 30일(금)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학부 졸업논문과 대학원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7월~8월 두 달간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울산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경주문화재연구원, 대성동박물관에서 총 18명의 학생들이 부산, 김해, 경주, 창녕 등 영남일대의 발굴현장에서 발굴을 하거나 연구원에서 실측, 토기복원 등의 실내작업을 하였다. 9월 9일(금)에는 고고학과의 개강총회가 고고학과 실습실에서 열려 학과교수, 조교, 대학원생 및 학부생 70명이 모여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돈독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9월 27일(화)~29일(금) 2박 3일간의 학과 추계답사가 있었는데, 1학년은 경남일대, 2학년은 울산 및 경주일대로 다녀왔다. 한편, 2011학년도 2학기 해외우수교수로 중국 서북대학교 王维坤(Weikun Wang) 교수가 초청되어 한 학기 동안 중국고고학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왕 교수는 중국 唐나라를 중심으로 동양 3국의 도성 연구 등 동아시아 교류사 연구 성과가 탁월하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산하 부산대학교 인문학(HK) [고전번역+비교문화학 연구단]은 8월 22일(월)~23일(수) 제3회 「우리시대의 고전 읽기 콜로



키움」을 개최하였다. 본 콜로키움의 목적은 고전이 과거에 고착된 박제화 된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고전들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8월 25일(목)에는 「근대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발현 양상과 그 비판적 검토」라는 제하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인문학연구소의 「연속기획특강」은 9월 8일(목) 한수영 교수(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초청해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라는 주제로 마련되었는데, 전후문학을 언어와 사상사의 문제와 결부된 문화적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7월 1일(금)~2일(토) 한국민속학회, 산복도로포럼과 공동주최로 「한마을과 새마을: 생태의 민속학」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인문학 시민강좌인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 강좌는 7월 14일(목) 1기 수료생 43명을 배출했으며, 본 연구소의 논문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 변화」(차철욱·공윤경·차은정)가 2011년 「기초연구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1 인문주간행사가 9월 19일(월)~25일(일)까지 「삶의 지혜와 행복 찾기-지역 인문학, 무지개로 채색하다」라는 테마로 부산 지역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고전(古典)에 관심 있는 교사,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7월 25일(월)~29일(금) 밀양시립도서관 5층 시청각실에서 제9회 밀양 인문고전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7월 25일과 26일에는 「고요와 역동의 변주, 漢字에 담긴 동아시아 문화 권력을 읽다」를 주제로 「동양고전 아카데미」가 열려, 한자학 연구와 한자 교육의 최고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문해지(說文解字)」와 「천자문(千字文)」을 통해 한자에 담긴 동양적 사유의 심원한 깊이와 은밀한 이데올로기를 만나볼 수 있었다. 27일, 28일, 29일로 이어지는 「우리고전 아카데미」에서는 중세 최고의 고전문물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라는, 우리 문학사의 거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의 저작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심(精深)하게 읽고 날카롭게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9월 19일(월)~24일(토) 1주일간 밀양 전역(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도서관, 밀양청소년수련관, 밀양역 등)에서 「2011 밀양 인문주간」을 개최하였다.

동문 소식

동문회 조직 (2010.1.1 ~ 2011.12.31)

동문회장

홍성복 (철학 76)

동문회 고문

박태권(국문 48), 박근우(영문 52), 손선익(사학 53),
조현규(영문 54), 진문희(국문 56), 박홍길(국문 58),
김승동(철학 59), 강손근(철학 67)

수석 부회장

권태하(국문 77), 황영순(영문 80)

당연직 부회장

한익훈(사학 64), 이현홍(국문 70), 박만준(철학 70),
배만호 (영문 74), 주환수(독문 79), 이무진(일문 82),
장형기(중문 83), 고창현(불문 84), 양은경(고고 89),
배부기(한문 90), 박동근(언어 94), 조영은(노문 95)

선임 부회장

윤병태(국문 66), 안상길(국문 76), 김기섭(사학 76),
유수근(영문 78), 손성용(독문 78), 조한제(영문 79),
전광호(불문 79), 배정우(철학 79), 박용환(불문 80),
주환명(영문 81), 남경우(독문 81), 남덕현(중문 82),
강영훈(일문 82), 조인실(일문 82), 김쌍우(국문 83),
강상욱(사학 83), 이성권(철학 88)

동문회 감사

김필순(국문 66), 손영삼(철학 78)

자문위원

박동춘(사학 46), 안동환(영문 68), 공옥식(국문 74)

당연직 이사

박미숙(독문 79), 이진광(독문 79), 한태문(국문 81),
장광진(영문 81), 이종봉(사학 81), 이찬엽(중문 83),
노의석(불문 85), 김민정(일문 90), 강대호(고고 90),
김창준(철학 91), 임영선(노문 95)

사무국장

김아가다 (국문 76)

사무차장

박형준(사학 84), 노의석(불문 85)

2011년 인문대 동문회 워크숍



7월 9일(토)~7월 10일(일) 1박 2일간 경북 덕구온천 리조트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인문대 동문회 워크숍이 열렸다. 올해 네 번째 맞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문대학 부학장인 김종수 동문(독문 84, 부산대 독문과 교수)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고, 뒤이어 참석한 여러 동문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가는 첫날부터 오는 날까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포항 양동마을과 경북 영덕 괴시마을, 경북 울진군 덕구계곡, 안동에 있는 농암 이현보 선생 유적지인 농암종택, 퇴계종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책교인 월영교를 둘러보고 왔다. 작년에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남 화순 도곡스파랜드에서 인문대 동문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신임교수 부임

2011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통해 인문대학에서는 2명의 조교수와 1명의 외국인 강의전담조교수가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었다.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이선진



이선진 교수는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동대학원에서 영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문학과 관련한 강의활동을 해 왔다. 현재 새한영어영문학회 총무간사를 겸하고 있으며, 논문으로는 「흑인 남성성의 귀여움: 랜달 케논의 『정령의 방문』」, 「“그 깊은 분열을 메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찰스 존슨의 『중앙행로』에 나타난 이원론과 상호체성」,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 2000-1887』에 나타난 노동과 계급」 등이 있다.

언어정보학과 조교수 김태호



김태호 교수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언어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뉴욕 주립대학교(Buffalo 소재)에서 언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경희대학교, 한성대학교, 경남대학교 등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였다. 주 전공분야는 응용언어학(기능언어학)이며, 언어와 표현기법, 언어학특강, 언어와 인지 등의 과목을 강의한다. 대표논문으로는 “Negation in Korea : Its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Process” 와 “An Empirical Study of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 등이 있다.

중어중문학과 강의전담조교수 유원춘



유원춘(劉元春) 교수는 상해 화동사범대학에 『唐代字樣學研究』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중국어학’ 과 ‘문자학’ 을 전공하였으며, 現 상해 교통대학 중어중문학과에 재직했다.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이재봉(국어국문학과)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12개월(2011.2.10~2012.2.9)

연구년 A

양은경(고고학과) | 미국 하버드 연칭 연구소
1년(2011.9.1~)

연구년 B

김기섭(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김동철(사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이영철(철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박선재(국어국문학과) | 부산, 1년(2011.3.1~2012.2.29)
김임숙(일어일문학과) | 1년(2011.9.1~2012.8.31)

교수동정

| **강식진** 교수(중어중문학과)는 8월 26일(금)~29일(월)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인문대학 해외인턴사업 성과 확인 및 학생 귀국 확인 차 중국에 다녀왔다.

| **류명희** 교수(중어중문학과)는 7월 24일(일)~26일(화) 학과단위 해외파견 학생 인솔 및 숙소 배정협의차 중국에 다녀왔다.

| **류민화** 교수(일어일문학과), **최동규** 교수(노어노문학과), **김인택** 교수(언어정보학과)가 9월 1일자로 각각 학과장을 겸보하게 되었다.

| **배만호** 인문대학장(영어영문학과)은 8월 1일(월)~3일(수)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인문대학 해외인턴사업 팀을 인솔하여 중국 북경에 다녀왔다.

| **윤일환** 교수(영어영문학과)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연칭 연구소에서의 연구년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 **이상도** 교수(영어영문학과)는 7월 1일(금)~9일(토) 미국 서부 대학들의 언어교육원 방문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공동주관하는 TESOL 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 **제임스 A. 줄러** 풀브라이트 교환교수가 2011년 1학기 영어영문학과 객원교수로서 한 학기 동안의 강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 **박형섭** 교수(불어불문학과)는 7월 2일(토)~6일(수) 학과단위 해외파견 학생을 인솔하여 프랑스 브장송소재 프랑쉬-콩페대학교에 다녀왔으며 7월 14일(목)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11 그리스-한국 국제 문학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했다.

| **김중수** 교수(독어독문학과), **김준수** 교수(철학과), **이중봉** 교수(사학과)가 9월 1일자로 각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했다.

| **정출현** 교수(한문학과)는 8월 8일(월)~12일(금) 중국비교문학학회 제 10회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교수동정/신간소개

| **권연진** 교수(언어정보학과)는 7월 20일(수)~23일(토) 2012학년도 중국현지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업무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면접 및 서류 평가를 행하였다.

| **김인택** 교수(언어정보학과)는 8월 22일(월)~9월 4일(일) 베트남의 호치민 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센터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특강을 하였다.

| **최원규** 교수(사학과)는 8월 16일(화)~27일(토) 캐나다에서 열린 제 10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한말 일제 초기 토지정책과 소유권 분쟁」이라는 논문발표를 하였다.

| **김준수** 교수(철학과)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의 1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 **왕유곤** 교수(고고학과)가 중국 서북대학교에서 고고학자로 초청되어 한 학기 동안 중국고고학에 대해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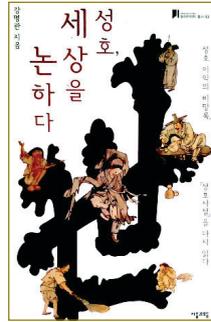
| **차철욱** 교수(민족문화연구소)가 9월 1일 동연연구소에 조교수로 신규 발령을 받았다.

신간소개

『성호, 세상을 논하다』

강명관 지음, 서울: 자음과모음, 2011

강명관 교수(한문학과)는 '성호사설'에서 이익(1681~1763)의 사상적 특징과 조선 특유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글을 골라 38개의 주제로 정리한 다음, 독자적인 해석을 덧붙인 『성호, 세상을 논하다』를



펴냈다. 성호사설은 정치는 등졌으나 세상은 등지지는 않았던 조선 지식인이 독서와 사색을 통해 건져 올린 3007편의 에세이를 묶은 문집이다. 아버지의 유배지에서 태어나 과거를 포기했던 이익은 36년간 초야에서 학문에만 매진했다. 문학, 예학, 경학, 자연과학 등 그가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었다. 강교수는 관직, 외교, 교육, 천문, 지리, 전쟁, 무기, 종교 등을 종합하는 성호의 사상들을 관료, 사치, 노비, 지식인, 생명사상 등 주제별로 나눠 간략한 원문과 함께 소개했다.



『만주영화협회와 조선영화』

김려실 지음,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2011

김려실 교수(국어국문학과)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간하는 'Film Story 총서' 제 11권 『만주영화협회와 조선영화』를 펴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영화연구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전모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영화협회에 대한 본격 연구서이다.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만주국의 '만주영화협회'에 대해 추적했다. 김교수는 영화라는 미디어가 만주 이미지 형성에 작용한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만주영화협회가 구축하고자 한 대동아공영권 영화의 정체성에 대해 조명했다. 조선영화가 만주에 보급되었고 조선인 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국영화사에서 만주영화협회가 갖는 의의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영화의 속성에 주목한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영화관람 경험은 물론 만주로 수입된 조선영화 목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영화사의 흐름 속 한국영화의 과거사도 되돌아보게 한다.

